

Antonio Gramsci의 교육론

김민호

〈 목 차 〉

I. 머리말	IV. 지도자 교육론: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
II.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유지와 교육: '헤게모니'	V. 피지도집단 교육론: 헤게모니 관계로서의 교육적 관계
III.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변혁과 교육: '진지전' '유기적 지식인'	V. 맺음말

I. 머리말

많은 혁명가들의 사상과 이들의 활동을 살펴볼 때, 교육¹⁾이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동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교육은 혁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의 성격을 혁명을 위한 선전, 선동 이상의 것으로 간주했던 혁명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체로 혁명 전위대가 밖에서 대중들에게 혁명의식을 주입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혁명과정에 동원하는 일에 관심을 둘 뿐이었지, 대중의 내적 잠재력 — 예컨대, 지도자로서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 — 을 믿고 대중과 지식인의 변증법적 상호 교섭과정을 통해 혁명을 주도해 나갈 지도자를 형성하는 일 — 예컨대, '지적, 도덕적 능력'의 창조 — 을 혁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²⁾ A. Gramsci는 바로 보기 드문 혁명가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동계급의

1) 여기서의 교육이란, 학교교육(formal education)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교육(non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을 포함한 것이다.

2) 혁명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선전으로서의 교육(banking concept of education)에 반대하고 주체적 학습활동과 그의 촉진(problem-posing concept of education)을 주장한 P. Freire는 사회운동(혁명을 포함)에서의 사회교육의 위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Freire, 1979참고). 예컨대, Cadena에 따르면, 남미의 농민운동에서 농민교육은 농

‘유기적 지식인’³⁾의 형성이야 말로 이태리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일로 보았고, 실제로 1919~20년 Turin의 혁명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학습씨클, 토론집단, 교육클럽 등을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Youngman, 1986).

게다가 그람씨의 ‘사회변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구상은 당시 이태리 ‘부르조아지 지배의 사회 및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동일한 논리체제 속에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그람씨의 혁명전략이 다른 사회에서 배태된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태리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대개의 혁명론들이 자칫 빠져들 수 있는 교조주의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그람씨는 ‘경제결정론’ ‘계급결정론’을 지양하고, ‘헤게모니’(Hegemony)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오늘날 교육사회화계의 중요한 이슈인 ‘재생산 논의’를 ‘탈재생산 논의’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

바로 이러한 교육적 관심, 사회변혁에 대한 관심 및 이론적 관심들이,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교육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교육학도들(사회과학도는 물론이러니와)로 하여금 안토니오 그람씨를 찾게 하는 까닭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그람씨는 당시 부르조아 지배의 이태리 사회체제가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까닭을 무엇으로 보았으며, 교육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교육의 재생산 논의에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

둘째, 그람씨는 자신의 혁명전략에서 레닌과는 달리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형성을 왜 그토록 강조했는가? 그리고 이같은 생각은 교육에 관한 ‘탈재생산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Education ‘for’ peasants)과 농민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교육(Education ‘with’ peasants, ‘for’ their class interests)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Cadena, 1987).

3) ‘유기적 지식인’에 대한 설명은 III절을 참조할 것.

4) “헤게모니 개념의 등장으로 이데올로기 분석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형성, 유지 및 재생산 과정과 그에 대한 도전, 반대 및 변화의 조건을 동시에 구명하는 논의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김기석, 1987 : 62). “이 관심은 재생산 논의나 ‘새로운’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보인 관심과는 다르다. 탈재생산 논의에서는 사회구조의 분석과 상호작용 과정의 분석을 균형있게 통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석, 1987 : 75).

세째, 그람씨는 혁명의 지도집단인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과연 어떻게 길러낼 수 있다고 보았나? 즉, 어떠한 교육이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조직 및 교사—학생관계를 생각했었나? 그리고, 이같은 생각은 전통적인 인문교양론 및 아동중심교육론과 어떻게 다른가?

끝으로, 그람씨는 어떤 이유에서 지도집단과 피지도집단과의 교육적 관계를 조직적인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치적 실천들 속에서 찾고자 했는가? 즉, 정치의 교육적 성격을 규명하려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교육의 본질 규명 및 성인교육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

II.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유지와 교육 — ‘헤게모니’

그람씨는 부르조아 지배의 이태리 사회체제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까닭을 기존의 어떤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서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마르크스를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즉, 그는 Kautsky의 ‘경제주의’, Lukacs의 ‘상부구조주의’, Lenin의 ‘정치주의’를 각각 비판하고 ‘헤게모니’⁵⁾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⁶⁾로서의 이태리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에는 없었던 바로 이 ‘시민사회’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전쟁의 참호체제’로서 이태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보았다.

우선, 그람씨에 따르면 ‘경제주의’는 사적유물론을 견지했으나,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단지 경제적 토대의 기계적 반영으로 보고 역사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 5) 헤게모니란, 어떤 계급이 자신의 이익에 다른 집단의 이익을 접합(articulation)시키는 정치적, 지적 및 도덕적 지도력을 의미한다.

최장집(1985)은 그람씨의 헤게모니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헤게모니는 제도, 이데올로기, 관습, 도덕, 행위자 등으로 구성된 유기적 복합체로서 사회내에서 표현되며, 사회내에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도그룹이 또는 그것의 분파가 피지배 그룹의 이익과 요구를 형성함에 필요한 정치적,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르조아 지배를 가능케 하는 헤게모니는 힘과 동의, 지배와 도덕적 지도의 배합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강제력이 동의를 본질적 구성요소”이며 “만약,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바꿔말해, “헤게모니란 기실 강제력이란 보호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최장집, 1985 : 40~42)

- 6) 시민사회란, 제재와 강제적 의무없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해서 부르조아의 관습, 사고, 행동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제환원주의의 잘못을 범했다.

Lukacs의 '상부구조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데올로기의 경제환원주의를 극복했으나, 이데올로기를 사회계급의식과 동일시하여 계급환원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즉,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태리는 아직 노동자 계급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그람씨는 노동자의 계급의식만으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다른 계급으로부터의 동의기반— 헤게모니—을 노동자 계급이 창출하는 일이 사회변혁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었다.

또한, 경제결정론을 극복한 Lenin의 '정치주의'에 대해 그람씨는 상당한 칭송을 보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계급간의 정치적, 경제적 연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조할 뿐,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한다. 그람씨에 의하면, 서구 부르조아지 사회는 러시아와는 달리 '시민사회'가 '근대적 전쟁의 참호체제'와 같이 버티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의한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 쟁탈 즉, '진지전'이 필수적이다.

요컨대, 그람씨는 사적 유물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이 갖는 경제결정론, 계급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헤게모니 개념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성격을 밝혔으며 이데올로기가 갖는 인간형성 기능과 그것의 사회적 위상을 제공하고 있다(Mouffe, 1979 : 188).

한편, 이같은 그람씨의 헤게모니 개념은 교육과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하나는 헤게모니 계급으로서의 부르조아지가 부르조아지 헤게모니 원리에 따라 구축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헤게모니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원리에 따라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을 탈접합, 재접합하여 새로운 '역사적 블럭(Historical Block)'⁸⁾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방식, 도덕 등을 유지하는 사적인 것으로 지칭되는 유기체의 총화이다. (Hoare & Smith, 1971 : 12) 최장집(1985)은 그람씨의 시민사회를 하부구조적 차원보다는 상부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7) 이에 대한 설명은 Ⅲ절을 참조할 것.

8) 물리적 힘이 그것의 내용이고, 이데올로기가 형식인 여러 계급의 연합(SPN, p377). Sassoon에 따르면, 그람씨의 '역사적 블럭'이란 사회내의 제계급과 분파들이 서로 관련되는 복합적인 방식과 그리고 현실속에서 문화적, 경제적 측면들이 상호간에 맺는 복합적 관계를 가리킨다. 또한 Sassoon에 의하면 정통 맑스주의자들의 '경제적 토대'라는 단순한 개념을

전자의 경우⁹⁾, 부르조아지 집단은 부르조아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정한 전문적 범주의 ‘유기적 지식인’을 교육, 배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창출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이들 유기적 지식인을 세련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모든 헤게모니적 관계는 교육적 관계’¹⁰⁾이므로, 조직적인 학교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지도 — 피지도의 관계가 설정되는 곳이면(예컨데, 교회, 언론, 출판, 사교육 기관, 병원, 군대, 사법기관 등) 어디에서든지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여, 헤게모니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그람씨의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우리는 교육에서의 경제 재생산, 문화 재생산 논의가 빠져들던 행위 주체자의 수동성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교육사회학의 재생산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Ⅲ.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변혁과 교육: ‘진지전’, ‘유기적 지식인’

그람씨의 혁명전략에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람씨가 제시한 ‘진지전’과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우선, 그람씨에 의하면 ‘진지전’(War of Position)이란 폭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기동전’(War of Movement)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형성¹¹⁾을 통해 즉, 대중의 지적 - 도덕적 개혁을 통해 민족적 - 민중적 집합의지를 수립하고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를 건설하려는 혁명전략이다. 이것은 러시아와는 달리 이태리에는 부르조아 헤게모니에 의한 ‘시민사회’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람씨의 현실분석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런데, 이러한 진지전은 첫째, 노동계급의 농민대중을 비롯한 민중세력과

이 ‘역사적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블럭이 생성될 수 있음을 제시했고, 특정계급의 헤게모니가 다양한 역사적 블럭을 통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assoon, 1984 : 24).

9) 후자의 경우는 다음 III절에서 논의할 것임.

10) SPN, pp.340~350. 자세한 논의는 V절 참조.

11) 헤게모니의 형성은, 이 경우처럼 여러 집단들이 표현하는 바의 모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여러 집단들의 충분한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접합하는 경우(expansive hegemony)와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중화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요구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접합하는 경우(transfromism)가 있다(Mouffe, 1979 : 182~183).

12) 그러나, 그가 기동전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시민사회가 저항하므로 국가에 대한 전면공격 전에, 먼저 시민사회가 정복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뿐이다. 때로는 국가권력이

의 계급동맹의 형성과 둘째, 부르조아지 헤게모니 원리(세계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원리(세계관)의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두 가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과업을 요구한다. (김학로, 1985 참조) 첫째의 계급동맹의 형성은 '현대의 군주'로서 당이 헤게모니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당은 강제력보다는 타협과 희생으로 민중의 적극적 동의를 획득하여 계급동맹을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집단과 피지도 집단간의 상호 교육적 관계의 형성이 요구된다.¹³⁾ 둘째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앞의 계급동맹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대중의 지적-도덕적 개혁을 위해 요구된다. 이는 대중의 '상식(Common Sense)'¹⁴⁾의 일부가 된 부르조아지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며 더 나아가 대중의 상식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이론적 의식을 토대로 진정한 '자기인식'과 '정치적 의식'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기적 지식인'(the Organic Intellectuals)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람씨에 의하면, 모든 사회집단들¹⁵⁾은 경제적 생산의 영역에서 어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기들에게 동질성을 부여하고 경제적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있는 자신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식인 집단을 창출하는데, 이렇게 창출된 이들이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기업가에 의해 창출된 산업기술자, 정치경제의 전문가, 새로운 법률의 조직가 등을 가리킨다. 또한, 진지전에서 '현대의 군주'로서 헤게모니 체제를 구축하려는 당(黨)도 노동계급의 집합적인 '유기적 지식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계급이

변형된 다음에도 새로운 사회가 확고히 건설될 때까지 진지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꿔말해, 그람씨는 정치사회의 계기, 강제의 계기, 지배의 계기를 간과했던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와 동이의 이론을 강제와 경제의 측면으로 부터 비변증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피하려 했던 것이다(이상훈, 1986 : 216~217).

13) 자세한 논의는 V절 참조.

14) 대중의 상식이란 특정시기에 일반화된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인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모순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혁명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SPN, pp. 321~322). 동시에, 대중의 상식안에는 양식(Good Sense)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건강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철학과 단편적 이념의 모임인 상식을 엄격히 구별함은 불가능하다(SPN, p328). 이것은 모든 인간은 사회적 기능면에서 지식인이 아닐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지식인이라는 그람씨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15) 농민대중은 역사상 자신들의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하지 못했고, 비록 전통적 지식인 중에 농민출신이 있다해도 전통적 지식인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원초적 활동의 일부분을 전담하고, 새로운 사회의 발전의 길을 닦아 놓는다.

한편, 앞선 시대의 경제구조로부터 역사에 출현했으며, 그 경제구조의 발전의 표현인 ‘필수적인’ 모든 사회 집단들은, 이미 존재해 왔고 매우 복잡하고 근본적인 정치, 사회적 형식의 변화에 조차 전혀 방해받지 않고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지식인 범주를 갖고 있다. 소위 ‘전통적 지식인’(the Traditional Intellectuals)으로서 예컨데, 성직자들이 그리하다. 비록,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리며 토지귀족과 유기적으로 관련되긴 하나, 이들의 상부구조 영역(예컨데 라틴어)에 대한 독점이 절대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전통적 지식인들은 지배집단과 독립적인 셈이다(SPN, pp.5~7).

그런데 혁명전략으로서의 ‘진지전’에서는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 요구된다. 즉, 진지전의 전략으로서, 노동계급이 민중과의 계급동맹을 결성하고 이들(민중)의 상식에 내면화된 부르조아지 세계관이 극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적, 도덕적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지식인 집단의 기능이 요청된다.¹⁶⁾ 다시말해,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예컨데, 당)은 첫째, 자신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지적, 도덕적으로 개혁하고¹⁷⁾ 둘째, 민중(농민대중)과의 계급동맹을 통해 민족적-민중적 집합의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람씨는 그의 혁명전략에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형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람씨의 혁명전략과 지식인론 및 이데올로기론(상식)은 상부구조로서의 교육을 통해 기존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다시말해, 그는 시민사회에서 생산-확대되는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인간(subject)을 형성하는 하나의 실천으로서 물질적 제도적 성격을 지니며 또한, 지식인 집단에 의해 실천됨을 인정하면서, 교육이 일련의 혁명과정에서 혁명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들에 의한 대안적

16) “개혁은 적어도 처음에는 대중들로부터 올 수 없다. 인간활동에 내재된 개념이 어느정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인식과 자세하고 결정적인 의지에 도달하게 하는 엘리트의 매개작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SPN, p335).

17) 이는 지도자로서의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 피지도집단인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교육(V절 참조)으로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IV절 참조)과 구분된다. 그러나, 이 때 지도자와 피지도집단과의 관계는 능동적이며 상호교육적 성격을 지닌다.

세계관의 보급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바꿔말해, 교육의 재생산 논의를 극복하고 교육의 '탈재생산 논의'로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관심사를 돌려 놓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IV절과 V절에서는 그람씨의 변혁지향 교육론의 두 측면—지도자 교육과 피지도집단 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IV. 지도자 교육론 :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형성

'진지전'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가? 즉,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략은 기존의 교육관과 어떻게 다른가?

그람씨에 의하면, 새로운 지식인 집단(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의 창출은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지적 활동을 비판적으로 세련화하고 둘째, 그 지적 활동과 근육 신경활동과의 관계를 수정하며 세째, 근육 신경활동 자체가 새롭게 통합된 세계관의 기초임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SPN, p9) 바꿔말해,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기존의 부르조아적 관념론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철학을 '교육이념'으로 삼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¹⁸⁾

또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형성하기 위해 그람씨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조직' 및 '교사-학생관계' 등을 어떻게 구상했는가는 당시 파시즘 체제의 아동중심 교육개혁안과 전통적 교육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람씨가 제안하고 있는 '보통학교'(Common School)와 '정당'에 관한 생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람씨에 따르면, 당시 이태리에서 추구하던 <아동중심의 교육개혁안>¹⁹⁾은 관념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문제는 교육과정 모형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고, 단지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인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표현하는 전체 사회구조에 관한 것" (SPN, p36)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개혁은 말의 수사학에 그쳐 실제로는 사회적 차별의 영속을 가져왔다. 따라서 아동중심의 교육개혁은 노동계급

18) 실천철학을 '교육이념'으로 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능력만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 까지도 교육을 통해 기대함을 뜻한다.

19) 이는 1923년 문교장관인 Gentile가 Croce의 영향력 아래 입안한 교육개혁안으로서, 1859년 카자티 법령(The Casati Act) 이래로 전통적 교육을 추구해 오던 기존의 이태리 교육제도를, 교육(education)이 아니라 편협하고 형식적인 교수법(instruction)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Rousseau의 낭만주의적 아동중심 교육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에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또한, 옛 이태리의 <전통적 학교교육>은 전통문화의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함양에 기여하긴 했으나, 당시 이태리와 같은 전통문화의 위기시대에 그 같은 교육은 학교와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학교교육 역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에는 미흡한 셈이다.

반면에, 그람씨가 제시한 '보통학교'는 실천철학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첫째, 고전 교육과 직업 및 정치교육의 새로운 결합. 둘째, 교수법과 교육의 종합. 셋째, 학교와 생활 사이의 종합으로 특정지워지며, 아동중심의 교육이나 전통적 교육을 극복하여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Adamson, 1986 : 226~228).

우선, 그람씨는 고전 교육과 직업 교육을 결합시키는 만인을 위한 하나의 '보통학교'를 제안한다. '보통학교'는 처음 3~4년간 읽기, 쓰기, 셈하기, 지리, 역사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혼육적 차원에서 가르치되, 나중 6년 정도는 창의적 방법에 의해 주로 인문주의적 가치와 지적인 자기훈련 및 도덕적 독립성을 창출하여 이후의 전문적인 대학교육이나 직접적인 생산에 관련된 직업교육에 대비케 한다. 그러나, 고전적, 지적 작업에 뛰어난 재질을 보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술적, 정치적 훈련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게 하지는 않는다해도, 최소한 전문가 등에 의해 제안된 해결책을 판별하고, 정치 기술에 관한 종합적 관점으로부터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술문화의 극소치라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SPN, p28).

다음으로, 그람씨는 보통학교의 초기에는 훈련, 후기에는 자유의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상함으로써 '교수법'과 '교육'을 종합하고자 했다. 예컨대, 보통학교 초기의 어린이에게는 강요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혼육없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²⁰⁾ 또한, 보통학교의 교육과정도 고대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풍부히 담아" 고대사회는 물론 현대문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법적'이다. 다만 학생들이 전문성의 영역으로 접어들어 가는 시기가 가까워질 때, 그람씨는, 보통학교가 좀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되어서 마지막 2년 동안은 어린이가 '상식'에 치우친 토대를 벗어나 보다 통합되고 일관된

20) "마흔 살 먹은 학자가, 만일 그가 어릴 때 기계적 강제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적절한 정신적 신체적 습관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열 다섯 시간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SPN, p370).

세계관으로서의 이행을 꾸려 나가는 ‘결정적 단계’를 밟아가길 바랐다.

끝으로, 그람씨는 학교와 생활의 통합을 위해 보통학교에도 대학교처럼 기숙사 제도를 두고자 했다. 즉, 기숙사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 아래 집합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교사와 동료학생의 도움에 의한 집단적 학습을 하고 나아가 단체정신을 기르도록 한 것이다.

한편,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보통학교’에서 그 기초가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을 통해 세련화된다. 즉, 지도집단으로서의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당을 통해 피지도 대중의 자생성을 자신의 지도력안에 통일시키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당을 조직하고, 피지도 대중과의 감정적 유대²¹⁾를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더욱 세련화된다. (김학로, 1985 참조) 또한, 정당활동을 통해 세련화된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다음 세대의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기르기 위한 ‘보통학교’ 교사가 되기도 한다(SPN, p26).

V. 피지도집단 교육론 : 헤게모니 관계로서의 교육적 관계

헤게모니와 교육의 관계는 II 절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그람씨가 모든 헤게모니 관계 그 자체가 곧 교육적 관계²²⁾라고 말한 까닭을 살피고 그리고 이것이 피지도집단의 교육 및 성인교육이론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지도자와 피지도자,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헤게모니적 관계가 상호교육적 관계라는 말의 의미는 지도자가 피지도자에 대해 늘 우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역시 피지도자로부터 배워야 할 바가 있다는 뜻이다. 바꿔말해, 지도집단이나 피지도집단 모두가 자체적으로는 완벽한 것이 아니며, 상호교육을 통해 지적, 도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람씨가 모든 헤게모니 관계는 교육적 관계라고 말한 까닭은 지도집단과 피지도집단이 상호교육적인 겸허한 자세를 통해 하나로 합쳐지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진정한

21) “민중은 ‘느끼는’ 반면에 항상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지식인은 ‘아는’ 반면에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느끼는 것은 더욱 아니다” (SPN, p418).

22) 여기서 교육적 관계란 교사가 학생이기도 하고 학생이 교사이기도 한 상호교육적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교육적 관계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식인과 비지식인, 통치자와 피통치자, 엘리트와 추종자, 지도자와 피지도자, 전위대와 주력부대 간의 모든 헤게모니 관계안에 존재한다(SPN, p350).

의미의 '역사적 능력'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식하지만' 이해하거나 느끼지는 못한 지식인이 '느끼지만' 항상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민중과 유기적 결속을 이루어 낼 때,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위한 역사적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람씨가 지도집단과 피지도집단간의 헤게모니 관계를 상호교육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우리들에게 이제까지의 혁명과정에서의 피지도집단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을 제공해 준다. 즉, 피지도집단의 무능함을 전제로 이들을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서만 파악하던 방식(Education for People)을 벗어나, 피지도집단들의 내적 잠재력과 감수성을 믿고, 이것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이들과 함께하는 교육(Educating with People)으로 나아가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중교육의 핵심내용은 지배층에 의해 주어지는 문화가 아니라, 민중 자신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교육론'(Popular Education)이라 불리는 학문전통과 일맥상통한다.²³⁾

그람씨의 피지도집단 교육론이 시사하는 바는 그것의 '민중교육'적 성격에 그치지 않는다. 그람씨는 상호교육적 관계의 성격을 지닌 헤게모니 관계가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지식인과 비지식인, 통치자와 피통치자, 엘리트와 추종자, 지도자와 피지도자 및 전위대와 주력부대 관계에까지 펼쳐있다고 봄으로써, 교육을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속에 편재된 모든 헤게모니 관계안에서 찾아 볼 수 있게 했고, 나아가 성인교육이론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²⁴⁾

23) 김신일(1988)은 민중교육의 성격과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민중교육은 노동자, 농민,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또는 민중의 이익에 봉사한다.
- 민중교육의 주체는 민중 자신이나 민중을 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 민중교육은 기존 사회질서와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화한다.
- 민중교육은 전체적 사회변혁을 통한 대내적 및 국제적 새로운 질서 수립을 지향한다.
- 민중교육은 지배 - 종속질서에 대한 종래의 발전이론과 그것에 봉사하는 인간자본주의적 교육에 반대한다.
- 민중교육은 종래의 교사 - 학생관계와는 달리 학습자가 주체적 위치에 선다.
- 공교육 체제하의 학교교육의 지배를 반대한다(김신일, 1988 : 12~13).

24) 그람씨의 실천철학과는 달리, 관념론적 전통에서 교육의 원형을 전체 사회안에 편재된 어떤 실체로 간주하고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이를 발전하려는 장상호(1990)의 시도 역시 성인교육이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VI. 맺 음 말

그람씨는 마르크스주의 혁명가였다. 그러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Western Marxist)로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실패의 원인을 '부르조아지 헤게모니'에서 찾는 독특한 그의 관점은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첫째, '헤게모니' 개념을 도입해서 주체(Agency)로서의 인간의 관점을 잃지 않은 채, 자본주의 사회체제 유지에 교육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밝혀준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변혁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전'(반헤게모니의 확립=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형성- 지도집단 교육론- 과 '지적, 도덕적 불력'의 창출- 피지도집단 교육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탈재생산 논의'의 길을 더 놓았다.

셋째, 나아가서는 사회변혁 운동에서의 교육의 역할 내지 위상 정립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셈이다.

끝으로, 정치적 실천(헤게모니 관계)을 상호교육적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교육의 원형 탐색 및 성인교육이론 정립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그람씨의 교육론이 지니는 적합성은 앞으로 경험적 연구와 실천적 활동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 "서론: 제도교육 그 신화와 실상탐구", 김기석(편), 교육사회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7.
- 김신일, "민중교육론의 전개와 사상적 배경", 김신일 외, 한국교육현실과 민중교육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김학로, "Gramsci의 혁명전략 연구-진지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상호, "교육의 정체혼미와 교육학의 과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이론 제5권 제1호, 1990.12.
- 최장집, "그람씨의 헤게모니 개념", 김홍명 외,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한울 열린 글 #32, 서울: 한울: 1985.
- Adamson, W.L., Hegemony and Revolution: A Study of Antonio Gramsci's Political and Cultural Theo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 California press, 1980. 권순홍(옮김), 헤게모니와 혁명, 서울 : 학민사, 1986.
- Anderson, P., "The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New Left Review* 100, Nov.1976 - Jan.1977.
 - Cadena, F., "Popular Adult Education and Peasant Movements for Social Change" Duke, C(ed), *Adult Education : International Perspectives from China*, London : Croom Helm, 1987.
 - Entwistle, H., *Antonio Gramsci : Conservative Schooling for Radical Politics*, London : RKP, 1979.
 - Freire, P.,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성찬성(역), 페다고지, 서울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979.
 - Hall, S.et.al., "Politics and Ideology : Gramsci" Schwarz, B. et.al.(ed), *On Ideology, Working Paper in Cultural Studies 10*, Birmingham :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1977.
 - Hoare, Q. & Smith, G.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SPN)*,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이상훈(역), 그람씨의 옥중수고1-정치편, 서울 : 거름, 1986.
 - Mouffe, C., "Hegemony and Ideology in Gramsci", Mouffe, C.(ed), *Gramsci & Marxist Theory*, London : RKP, 1979.
 - Sassoon, A.S., *Approaches to Gramsci*, London : Writers and Readers, 1982, 최우길(역), 그람씨와 혁명전략, 서울 : 녹두, 1984.
 - Youngman, F., *Adult Education and Socialist Pedagogy*, London : CroomHelm, 1986.